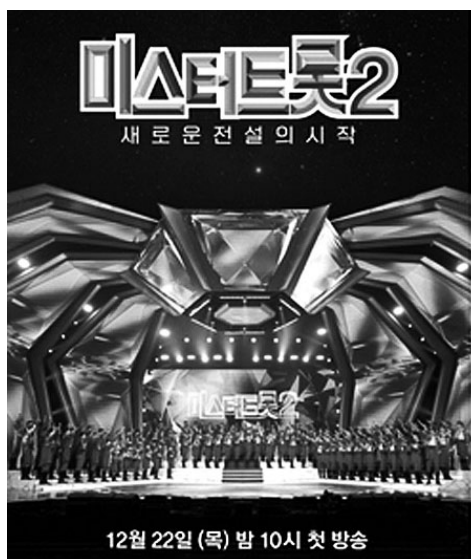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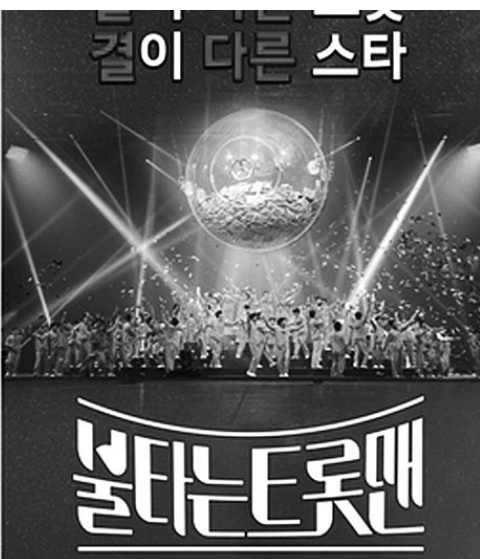
‘용두사미’ 트로트 오디션



‘미스터트롯2’·‘불타는 트롯맨’ 화제성·시청률, 전작에 못미쳐 경연 내용·구성 비슷해 식상 제2 송가인·임영웅 배출 못해



TV 조선 ‘미스터트롯2’



MBN ‘불타는 트롯맨’

화려한 출발을 알리며 트로트 팬들의 기대감을 끌어올렸던 대형 트로트 오디션들이 최근 아쉬움을 남긴 채 종영했다.

지난해 MBN과 TV조선은 비슷한 시기에 각각 ‘불타는 트롯맨’과 ‘미스터트롯2’을 선보이며 연말 트로트 판을 키워주려 기대에 비해 화제성은 미약했다.

이달 16일 종영한 ‘미스터트롯2’는 TV조선이 ‘미스트롯1·2’와 ‘미스터트롯1’에 이어 네 번째로 선보이는 프로젝트였다.

화제성과 시청률 모두 앞선 시즌들에 미치지 못했다. 경연 구성이나 편집이 이전과 달라지지 않아 예상할 수 있는 전개가 반복됐고, 새로운 팬층을 유입하는 데 실패했다. 실력을 갖춘 참가자들은 많았지만 송가인, 임영웅에 미치지 못하는 스타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미스터트롯2’ 최종회 시청률은 24.0%를 기록했다. 트로트 장르 특성상 고정 시청자가 있으니 타 예능에 비해 높은 시청률이지만, ‘미스터트롯1’ 때 시청률(35.7%)을 고려하면 한참 아쉬운 성적이다. 투표수를 들여다보면 더 확연한 차이가 보인다. 임영웅이 진(眞)이었던 ‘미

스터트롯’ 결승전 실시간 투표수는 773만이었지만, ‘미스터트롯2’ 결승전 투표수는 252만에 그쳤다.

이달 7일 종영한 MBN 트로트 오디션 ‘불타는 트롯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불타는 트롯맨’은 TV조선에서 ‘미스트롯’, ‘미스터트롯’을 만든 서해진 PD가 독립 제작사를 차려 나온 뒤 선보이는 프로그램으로 큰 기대를 모았다.

서 PD는 방송을 앞두고 한 인터뷰에서 “트로트에도 세대교체가 일어나고 있다. 신인류 트롯맨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

기존 트로트 프로그램보다 연령대는 낮아졌지

만, 특정 참가자에게만 분량을 몰아주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등 잡음이 일었다.

출연자 가운데 황영웅이 독보적인 인기를 얻으며 나름의 화제성을 견인했지만, 과거 폭행 전과와 학교폭력 의혹 등이 잇따라 터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결승 1차전이 방송되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졌고, 황영웅 팬들의 불만까지 터져 나오며 위기를 맞았다.

최종회 시청률은 1부 14.8%, 2부 16.2%, 3부 15.6%로 자체 최고 시청률 16.6%(10회)를 뛰어넘지 못했다. 최종회에서 우승자가 가려지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는 이례적인 일이다.

/연합뉴스

‘미스터트롯2’ 주인공은 안성훈

결승전 시청률 24%

TV조선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2’가 24%대 시청률로 막을 내렸다.

17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밤 9시 30분 방송된 ‘미스터트롯2’ 최종회 시청률은 24.0%로 집계됐다. 자체 최고 시청률이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최종회에서는 진(眞)의 자리에 오르기 위한 결승 진출자 7인이 인생곡을 걸고 펼치는 치열한 경쟁이 담겼다.

진의 왕관은 패티김의 ‘그대 내 친구여’를 열창한 안성훈이 차지했다. 안성훈은 마스터 총점 1288점, 온라인 응원 투표 700점, 실시간 문자 투표 1500점, 총 3488점을 기록했다.

그는 “제가 가진 작은 재능으로 때로는 위로가, 때로는 행복이 되는 가수가 되도록 평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선의 박지현은 나훈아의 ‘잡초’로 총 2928.81점, 미의 진해성은 이정옥의 ‘숨어우는 바람소리’로 총 2777.72점을 받았다.

‘미스터트롯2’는 TV조선이 ‘미스트롯1·2’와



‘미스터트롯1’에 이어 네 번째로 선보인 프로젝트인 만큼 팬층이 탄탄했다. /연합뉴스

장국영 20주기 ‘패왕별희’ 재개봉

다음달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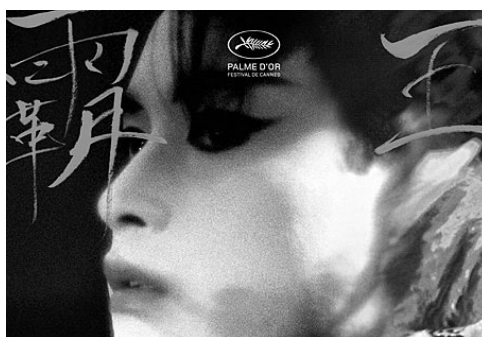
영화 ‘패왕별희’가 주연배우 장국영(장국영·1956~2003)의 20주기를 맞아 내달 1일 재개봉한다고 배급사 제이엔씨미디어그룹이 전했다.

‘패왕별희’는 경극을 사랑한 두 남자의 사랑과

질투를 그린 작품으로 1993년 칸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장국영, 공리, 장평이 등이 출연했으며, 장국영은 경극학교에서 만난 단짝 시투(장평의)를 남편래 짝사랑하는 두지 역을 맡았다.

/연합뉴스



지나온 시간... 삶의 흔적과 그리움

김용옥 시인 ‘봄날 꽃비는 그리움이던가’ 펴내

“때론 삶에 독한 회의(懷疑)를 느끼며 슬픔의 바다에 비애(悲哀)의 배를 띄우고 절대고독(絶對孤獨)의 돛을 바람에 맡긴 채 파도를 헤치며, 저 피안(彼岸)을 향하면서 좌절을 느끼기도 했던 그러한 나날들. 그렇게 사계절을 느끼며 시심(詩心)을 살피웠던 젊은 시절이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시인으로 태어난다. 어떤 인생을 살든 깊은 내면에는 순진무구했던 어린 시절의 자아가 내면에 깃들어 있기 마련이다. 또한 삶의 뒤안길을 돌아보며 발자국마다 남몰래 흘렸던 눈물과 고뇌의 흔적을 생각하게 된다. 그 시절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누구나 시인이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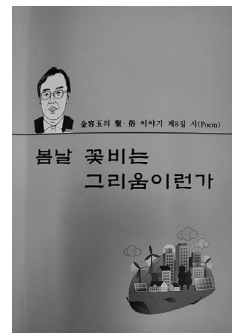
광주일보 편집국 부국장을 역임한 김용옥 시인의 ‘봄날 꽃비는 그리움이던가’ (디자인 미)는 사계절 자연을 숨쉬는 삶을 되돌아보고 노래로 위로 받았던 날을 그리고 있다. 시어는 평이하지만 오랜 묵상 끝에 펼쳐낸 단상들은 잔잔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준다.

첫 시집이기도 한 이번 작품집에는 모두 165편의 시가 수록돼 있다. “나이 들어 시를 쓰다 보니 삶을 되돌아보고 하소연하는 글들이 꽤 많이 차지하고 있음을 느낀다”는 표현대로 삶의 흔적과 지나온 시간에 대한 회오, 그리움 등이 드러워져 있다.

“봄비가 내리면/ 내 마음엔/ 꽃비가 함께 쏟아진다/ 그리움으로 빨갛게 물든 꽃비// 아직 눈<雪>의 흔적을/ 머리에 이고 있는/ 그늘진 곳의 흥매와/ 갓 핀 노란 개나리/ 수줍은 분홍빛 진달래/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벚꽃/ 그 꽃들의 향기가/ 제각각 다른 그리움을 안고/ 파고든다...”



김용옥 시인



표제시를 떠올리게 하는 ‘꽃비는 그리움’은 이맘 때의 풍경을 소환한다. 봄비를 기다리는 화자의 심상은 맑고 잔잔하다. 외면적인 그리움은 그 대상이 사람일 수도 있고 자연에 대한 사랑, 절대자에 대한 간구 등 다채롭게 해석될 수 있다. 시 곳곳에서 묻어나는 기독교적 사상과 사유는 시인이 지향하는 세계의 일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번 시집은 주제별로 정리돼 있어 그동안의 창작자의 이력을 엿볼 수 있다. ‘전설이 돼 버린 삶’, ‘계절에 녹아든 밀어’, ‘마음의 음계에 새겨진 노래’, ‘간구하는 나날’로 이루어져 있다. 시인은 자신의 삶을 모티브로 하면서도 결국은 나약한 인간으로서 절대자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섭리를 서정적이면서도 담담한 어조로 고백하고 있다.

한편 김용옥 시인은 한국기자협회 전남도지부장, 광주대 신방과 겸임교수,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제44대 광주광역시 초교과장연합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크리스천 문학 신인상(수필 부문)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광주시, 23일 ‘미술도시광주 선언’

광주시가 오는 23일 오후 1시 시청에서 ‘미술도시광주 선언 및 상생협약식’을 개최한다.

시는 이번 선언을 앞두고 17일 광주시청 회의실에서 ‘미술도시광주 선언 및 상생협약식’을 위한 민관학협치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요성 문화체육실장을 비롯하여 시립미술관, 광주미협, 광주민미협, 광주비엔날레, 광주문화재단, 광주박물관미술관협회, 건강 한 미술생태를 위한 화랑모임, 전남대, 조선대 등

미술관련 기관 대표 등 17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회의는 광주가 미술이 중심이 된 대표적인 도시인만큼 미술도시로서의 명실상부한 정체성을 명확히 규정하자는 의견에 따라 민관학협치 체계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는 향후 상생협약 기관들과의 정례적인 회의를 거쳐 미술도시광주의 정책비전 창출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고창농악 전통예술학교 29일 개강

(사)고창농악보존회(회장 구재연)가 운영하는 ‘2023 고창농악 전통예술학교’가 오는 29일 개강식을 열고 올해 일정을 시작한다.

고창농악전수관에서 오는 11월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8시에 열리는 이번 전통예술학교는 농악 전승교육을 비롯해 인근 지역 농악동호인들의 ‘즐거움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전통학교는 네 가지 악기로 고창농악 판굿 가락을 배우는 ‘판굿 앉은반(강사 이성수)’을 비롯해 악기를 메고 서서 진풀이와 함께 배우는 ‘판

굿 선반반(강사 주영룡)’, 구정놀이(악기별 놀이)를 배울 수 있는 ‘부포놀이반(강사 이광우)’, ‘설장구반(강사 구재연)’, ‘고깔소고반(강사 전새론)’이 개설됐다.

한편 구재연 고창농악보존회 회장은 “보존회는 문화유산인 고창농악을 전승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2023 전통예술학교 또한 농악으로 재미와 신명이 가득한 시간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